

느림의 멋따라 ‘여행 학교’서 하룻밤

완도군, 청산도 폐교 리모델링해 개교... 숙박·체험시설 갖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 느린 여행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2009년 폐교된 청산중학교 동분교를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해 27일 ‘느린섬 여행학교’(www.slow-foodtrip.com) 개교식을 가졌다.

이날 개교식에는 김중식 완도군수, 김주 완도군의원, 박병수 청산면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이 완도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한다.

이번 ‘느린섬 여행학교’ 개교에 따라 청산도 관광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단체숙박과 식사문제가 해소됐다. 또한 ‘슬로푸드 체험관’ 운영 등 새로운 여행상품 운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 주는 공간이란 뜻으로, 1층에는 세미나실 기능이 갖추어진 홍보관·식당·슬로푸드 체험관이 있고, 건물 2층과 교사들이 사용하던 관사는 각 실마다 테마가 있는 숙박시설로 꾸며 느림의 여유를 보다 아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 유성종 대표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느린섬 여행

학교’로 새롭게 변모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슬로시티’ 청산도를 상징하는 시설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린섬 여행학교’가 한국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사회적으로도 운영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고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슬로 라이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명소가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 청산도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2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가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서 한·일 국제 복지세미나

교수 등 참여 복지정책 발전방안 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민주화·개방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 초당대 교수는 지난 26일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열린 ‘한·일 복지 국제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앞으로 목포시라는 지역 공동체와는 별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가상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복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경주되고, 지역복지에 시민단체 형식을 띤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남에서 노인복지 선도도시인 목포시와 일본 동경에

서 복지가 제일 잘 돼있는 이타바시 구 간의 국제 세미나인데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선희 목포시 복지정책과장은 ‘목포시 복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목포 복지재단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소개하고, 각종 지원 시책 등도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정책중 거리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육아고민 상담 ‘야기의 역’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서부취재본부=고유석기자 yousou@



“봄을 낚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오는 4월 14일 진도군 진산면 보전 저수지에서 열린다. 올해로 4년 연속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남낚시연합회와 진도군 낚시연합회 주관, 전남도와 진도군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해남군, 농가에 미생물 무상공급

소득 늘고 환경 보호 ‘일석이조’

해남군이 친환경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해 생산비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간 200t의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을 완공해 4종(바실러스,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의 유용 미생물을 축산농가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을 작물 등에 공급할 경우 토양개량과 연작장해 감소, 병해충 감소, 작색 및 당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유용미생물을 가축사료에 섞어 쓸 경우에도 축사의 악취 제거, 소화력 증가, 면역력 증가, 육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실제로 옥천면 청신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정명남(53)씨는 “올 초부터 친환경미생물을 급여한 후 출하율이 94%에서 99%로 늘고, 출하기간도 당초 42일에서 40일로 2일 정도 빨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유용미생물이 소득향상은 물론 축사내 악취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미생물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가축분뇨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이웃돕기 기부문화 조성 앞장”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또 5천만원 기탁



목포지역 독자가 거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기금을 기탁해 호평을 받고 있다.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이사·목포중앙고등학교 이사장은 26일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써 달라며 목포 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린 ‘한·일 국제 세미나’ 행사장에서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전남도교육청에 장학기금 1억원을, 목포 장학재단에 5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새만금 산단에 ‘제조물류 시범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제 첨단부품소재 제조물류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국제 첨단부품소재 제조물류 시범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새만금 경제청은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20만평에 자동차·조선·선박·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관련기업을 집적화해 소재-부품-모

듈-완성품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부품소재산업 혁신를 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새만금 경제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시범단지 개발 구상 ▲중점유치대상 선정 및 육성방안 ▲물류시스템 혁신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부터 ▲첨단부품소재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잠재투자자 접촉 ▲지식경제부·코트라와의 공동 투자유치 마케팅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교과서 전북내용 48건 오류”

만석보 유지비 위치 잘못표기 등...道, 수정작업 완료

전북도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전북도 관련 오류 내용 바로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관광 트렌드 중의 하나인 ‘학습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전북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오류내용 48건을 찾아 수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주교육대 산하협력단에 ‘학교 교과서를 통한 전북 문화관광 진흥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산하협력단은 ▲초등학교 19종 ▲중학교 58종 ▲고등학교 37종 총 114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17개 출판사 40종 교과서에 73건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출판사 등에 수정을 요구해 올해 15개 출판사 27종 교과서 48건을 바로잡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완산주(전주) 등 전북관련 지도 수정(8건)과 전주향교·미륵사지·견훤성터 등 사진을 교체(5건)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 균형있게 기술(4건) 하도록 했으며, 소개되지 않은 7건의 전북문화와 축제·박물관 등을 추가로 수록했다. 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전주 경거전에 소장증임을 명시하고, 동학

농민운동과 함께 소개되는 만석보가 정음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전북의 지명을 포함(24건) 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전북도 관련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오류사항은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도에 시행된 중등교과서 50종과 고등교과서 52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도 문화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북교육청 국·공립 유치원장 임기제 도입

전북도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임기 제한이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던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를 운용한다. 교육청은 지난 21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공

립 유치원에도 원장 임기·공모제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금강 철새조망대서 ‘어린이 자연캠프’

군산시 금강 철새조망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군산시는 4월부터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입학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은 ▲3D 입체영상 관람 ▲재미있는 철새이야기 ▲철새조망대 전시관 관람 ▲동물 먹이주기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여 단체에서는 철새조망대(063-453-7213)로 신청하고,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보건소, 매월 ‘건강상담의 날’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오전 9~12시)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건강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 한다. 보건소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빈혈 측정 등 개인별 건강관리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지리산 야영장 내달 1일부터 개방

국립공원 지리산내 야영장이 4월 1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권 3개 사무소(지리산·지리산 북부·지리산 남부)는 27일 공원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이 가능해져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일반 야영장은 남원 뱀사골·달

궁·덕동 야영장, 구례 황전, 경남 함양군 백두대간, 산청군 중산리·소막골·내원사 등 9개소다. 자동차 야영장은 경남 산청 내원사, 구례 황전, 남원 뱀사골·달궁·덕동 등 5개소다. 이들 야영장은 가벼운 산행이 가능하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부안 봉덕에 아파트 들어선다

우림건설 373세대...주택전시관 개장 조합원 모집

오는 2014년 부안여상앞과 부안을 봉덕리 일원 2만8000여㎡(8500평)에 명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가칭)부안 봉덕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봉덕 주공 2차 아파트 맞은편에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을 개장해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우림건설에서 신축 예정인 이 아파트는 373세대(24·33평형)로 구성돼 있으며, 예정 세대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면 부안군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착공은 8월에 시작되며, 입주는 2014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확보로 토지금액의 변동이 없고 토지비분할 지급과 대물지급 병행, 상가는 공사비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타사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자금은 토지대금 외에 착공 이전 인출을 통제하며, 착공전에 조합비가 사임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추가 부담금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부안 봉덕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구상을 위해 우림필유 아파트를 우선 분양중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납입 자금은 국제신택(주)에서 신택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문의(063-581-0010)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역지사지(易之思之)’

이한주 남원시장과 간부공무원이 27일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작업 체험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통해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느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한주 남원시장과 간부공무원이 27일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작업 체험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통해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느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